

◆ 북한의 '주체' 개념 (프로포절 ver.2)

1. 주체사상의 형성

○ 김일성,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 당 선전선동 일꾼들 앞에서 한 연설 (1955.12.28.)

-1960년 5월 간행한 『김일성 선집』 4권에 발표

※ 김일성 주체연설의 최초 발언시기에 대하여: 당중앙위 확대상무위원회 회의(통설) vs. 1960년설(와다 하루끼-민족자주론이 1955년 12월 시점에 나왔을 리 없음)

- “우리는 어떤 나라의 혁명도 아닌 조선혁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선혁명이야말로 우리 당 사상사업의 주체입니다.”

○ 김일성, 「현 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제2차 조선노동당 당대표자회 연설(1966.10.5.)

- 김일성, “우리 당이 조선인민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올바로 지도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체를 철저히 확립하는 것” 알리 알함 사회과학원 강연 (1965.4.14.)

- 신진균, 「주체사상은 공신주의적 자주, 자립의 사상이다」, 『근로자』 19호 (1965.10.)

“맑스.레닌주의는 세계적.보편적으로 타당한 일반원칙이지만 이것으로 무장함과 동시에 사대주의, 교조주의, 민족허무주의와 투쟁하여 주체를 확립하는 방침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자주성 창조성의 원칙과 자력갱생의 원칙은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당과 인민의 립장인 두 측면에 관한 문제로서 전일적인 주체사상을 이루고 있다.”

“당이 1955년 4월의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주체를 확립하기 위한 전면적 투쟁을 전개했다”

○ 1967년 12월 16일, 제 1차 최고인민회의, 주체사상을 정부 10대정강 1항으로 공식화

○ 1970년 11월 조선노동당 제 5차 당대회, 주체사상을 노동당규약으로 명문화

○ 1972년 북한사회주의헌법 제 4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 1982년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주체사상의 출처를 “1930년 6월 카륜에서 진행된 공청 및 반제청년동맹 지도간부회의에서 주체사상의 원리를 천명하고 조선혁명의 주체적인 노선을 밝히었다.” (조작→서대숙 1989)

= 조작되었더라도, 의미있음. 스스로 주체사상의 기원을 1930년대로 잡는다는 것.

2. 주체사상의 시기구분 (이종석 2011)

A. 좁은 의미의 주체사상: 맑스.레닌주의 하위사상/ 북한사회주의 발전전략

B. 넓은 의미의 주체사상: 김일성주의가 맑스.레닌주의 대체 / 유일체제 지배권력 통치담론

○ 1950년대: 내재적 주체성 확보 (사대주의, 교조주의=소련식 모방에 대한 안티테제) (중.소와의 직접대결 아닌 국내 세력들과의 투쟁)

- 1960년대: 대외적 대응논리로서 북한 정권의 자주성 확립 (주체사상 등장)
- 1967년을 기점으로 김일성 유일체제 통치담론으로 굴절
- 1970년대 중반 이후: 자기완결성 갖는 논리적 구조 확립 (김일성주의 등장)
- 1982년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에 의해 완성

3. 정치적 배경 (와다 하루끼 2012)

(1) 스탈린 사망(1953.3)과 소련의 집단지도체제 채택, 개인숭배 비판

- ▶ 흐루시초프의 비밀보고, 스탈린 개인숭배비판, 평화공존론(1956.2 소련공산당 20차대회)

(2) 김일성의 정권 장악: 8월 종파사건과 반종파투쟁, 소련계와 연안계 숙청

- ▶ 1955년 말부터 당내 소련계 축출 움직임 (1955.12.2.-3. 당중앙위 전원회의/ 1955.12.27.-28. 당중앙위 확대상무위원회)

▶ 1956년 2월 소련공산당 20차대회에서 흐루쇼프의 스탈린 개인숭배 비판후, 브레즈네프의 방북 속에 열린 조선로동당 제 3회 대회 김일성 보고(1956.4.23.-29)에서, 주체강조 vs. 브레즈네프, “집체적 령도의 레닌적 원칙 수립” 요구

- ▶ 1956년 8월 종파사건과 반종파 투쟁

▶ 1957년 7월부터 본격적 반대파 숙청, 연안계 투옥, 소련계 처형, 행불, 추방
-1955년부터 현안이었던 김일성 검직문제

(3) post-한국전쟁기 소련, 중국의 영향력 배제

1958년 저우언라이 수상 방북, 북중 중국인민지원군 철수 공동성명

1960년 김일성 주체연설 발표 (사상비서 황장엽과 김일성이 새로 쓴 작문이라고 추정)

1961년 소련, 중국과 각각 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 체결 (등거리외교)

(4) 베트남 전쟁과 남조선혁명노선 채택

- ▶ 흐루시초프 실각(1964.10), 북소회복/북중갈등(월남전 지원), 중국의 교조주의 & 종파주의 비판

- ▶ 김일성 보고, 제2차 조선노동당 대표자회의(1966.10.5.-12)

- 베트남전 지원 촉구: “조선혁명은 세계혁명의 한 고리이며”, 사회주의 국가 속의 현대 수정주의 및 좌경 기회주의 반대

- 혁명에 의한 통일구상 발표: 한반도의 민족적 과업은 조국통일과 혁명의 전국적 승리, 북반부를 혁명의 위력한 기지로 만들고 남한에서 혁명세력 강화, 북반부에서는 사대주의 뿌리 뽑고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발양”, 남조선혁명의 기본임무는 미제국주의 타도, 맑스레닌주의 당 조직, 혁명세력 준비

▶ 김일성 연설, 도.시.군 및 공장 당 책임서기협의회 (1967.3.17.-24)

-“혁명적 대사변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어야 함, “남조선혁명을 완수하여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데 “모든 것을 종속시킬 것을 요구”, “전쟁에 대처할 준비를 잘 할 것”

-베트남 사태와 한국의 출병에 자극, 한국 혁명 현실화 가능성

▶ 1967년 4월 이후 로동신문 논조는 유일사상체계, 주체, 수령 집중 강조로 일변

4. 주체 개념의 의미론적 층위들

개념사: 사상사(사회민주주의, 마르크스.레닌주의)-국제관계사-민족사(전통의 invention/ 탈식민주의, 항일혁명전통의 강조)의 해석학적 or 현상학적 서술

(1) 지금은 언제인가?

-유물론적 역사 철학의 발전단계론

-맑스.엔겔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생산력의 한계에 부딪치는 ‘위기’ (경제불황)

- 자본주의의 영속성 vs. 혁명의 영속성

-북한/남한

(2) 혁명과 국가

- 좌파의 역사적.이념적.지리적 분기

- 유럽 사회민주주의 (의회제 틀 수용) (cf. 제 1인터내셔널에서 마르크스의 직접민주주의의 참여적 형태에 대한 약속은 의회제나 대의제 반대)

- 트로츠키 수정주의 (민족국가 우선)

- 자본주의 미발달, 생산력 포화상태가 아닌 사회에서의 사회주의 혁명?

- 레닌의 문제의식: ① 생산력, 성숙한 노동자 계급 부재의 문제 ② 제국주의 비판 ③ 혁명과 국가 (과도기로서의 프롤레타리아 독재/ 혁명이 완성된 이후 정치적 구조는?) (국가 자체가 한 계급의 다른 계급에 대한 독재: 1917년 혁명으로 권력 장악한 레닌 후반기의 스탈린주의적 전환) (아렌트=현존 사회주의는 야만.이 될 수밖에 없는 모순)

(3) 혁명과 리더십

-당과 인민의 관계: “노동계급을 외부로부터 계몽하는 직업적 인텔리 엘리트로서 당”(레닌)의 역할 강조

-민주집중제: 급진적 사회변혁을 위한 대중동원 ==>엘리트 혁명전위조직(중핵집단) ==> 카리스마적 권위를 가진 지도자

-영웅과 개인숭배: 마르크스주의, 레닌주의, (스탈린주의), 마오주의, 김일성주의

“선행이론에서 수령의 역할문제를 탁월한 개인의 역할 문제로 보게 된 것은 사회적 운동 일반에서와 같이 수령의 역할문제를 주로 지휘에 관한 문제로 보는 것과는 관련됩니다. 수령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는 단순히 지휘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심, 최고 뇌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김정일 1997)

-북한은 1960년대 주체사상 전개 초기부터 국가 이데올로기를 기존 사회주의의 지적.혁명적

이데올로기와 의식적으로 분리 ('선행이론') (오버도퍼)

- 성공한 혁명 권력의 승계 문제: 카리스마적 정치권력자의 생애주기 연장 (권위의 비영속성을
- 사회계몽에 국가권력의 강력한 개입: 대중적 사회동원과 대중적 정치교양 (극장국가)극복하려는 서사적 투쟁, 유헌/그리움의 정치) (가족국가)

(4) 역사발전 주체의 단위

- 계급을 대신하는 인간의 집단적 주체성?: 더 이상 사회계급이 없는 혁명 이후 국가의 인민에 대한 호명
-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국가유기체론의 후예)
- 역사적 유물론의 역전: 이념의 힘을 생산의 힘보다 우선시

(5) 아닌 것, 반대하는 것 (안티테제로서의-)

- 수정주의, 교조주의, 종파주의, 대국주의